

파견기간	2023.02~2023.06	<b>교환학생 귀국 보고서</b>	학번	2019-12841
파견국가	오스트리아		소속	공과대학 건축학과
파견대학	TU Graz		성명	이주은

###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해외의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나라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나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유럽을 가고 싶었고, 유럽의 공대 협정교들 중 건축학과 지원이 가능하고 여러 후기가 있었던 오스트리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다른 나라로 여행하기에 좋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 2. 대학 선정 이유

우선 건축학과 선배님들의 후기가 있었던 곳이 다양한 정보를 미리 얻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과대학 홈페이지의 후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TU Graz 의 경우 건축학과 수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학과 학생들도 많다는 후기를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라츠라는 도시는 오스트리아에서 수도인 비엔나 다음으로 큰 도시로, 전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영어를 사용하기 편리하고 치안도 좋은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 3. 출국 전 준비사항

#### 1) TU Graz 지원

우선 TU Graz 에 지원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환학생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아마 가장 큰 것은 토플 시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재적 증명서 등 큰 문제 없이 발급 가능한 서류들이라 지원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TU Graz 의 경우 교환학생 합격이 확정되면 메일로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수업용 웹사이트(서울대학교로 치면 eTL 같은 곳입니다) 가입하는 법 등 여러 절차를 자세히 메일로 송신하여주므로 꼼꼼히 읽고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헛갈리는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메일을 보낸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여쭙어 보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기숙사

그라츠 내에는 아주 많은 교환학생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업체를 이용하지만, 제가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집을 렌트하여 사는 경우(한국의 월세 자취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도 있었습니다. 또는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그룹에서 셰어하우스 공실을 구하여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편하고 정보가 많은 Oead 기숙사 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2023 년 1 학기에도 그라츠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 대부분이 OEAD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OEAD 에서 제공하는 그라츠 기숙사로는 노이바우가세(Neubaugasse), 모제호프가세(Moserhofgasse), 스테레이가세(Streyrgasse)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노이바우가세에 거주하였는데, 모든 기숙사들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이바우가세의 경우 도보 3 분 거리 내에 큰 마트가 3 개나 위치하고 있어 물건들을 사기에 매우 편리하고, 스페인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여 기숙사 자체 파티가 많이 열립니다. 단점은 바로 옆에 ppc 라는 클럽이 있어서 밤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고, 6 인 1 실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플랫폼메이트와 같은 플랫폼에 배정될 경우 생활 습관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티가 많은 만큼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이바우가세 기숙사 시설로는 작은 GYM 과 파티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숙사에는 자체 파티룸이 있어서 주말에 학생들이 파티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제호프가세는 대부분 2 인 1 실, 또는 1 인 1 실 형태여서 플랫폼메이트와 갈등을 빚을 일이 상대적으로 노이바우가세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학교와 좀 더 가까워서 통학에는 유리하고, 주변에 큰 유흥 시설이 없어 조용합니다. 어떤 곳이든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니 본인의 성향에 따라 잘 고려해보고 기숙사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ad 업체 기숙사의 경우 시설에 비해 월세가 그리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플랫폼메이트 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시설 관련 문의를 하였을 때 이메일 응답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친절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 3) 비자 신청

오스트리아 비자 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포털사이트에서 오스트리아 비자 발급 후기 등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얻었습니다. 비자 신청은 교환학생 합격이 되면 시간이 가능한 한 최대한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경우 발급이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출국 직전에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너무 초조할 것 같아 저는 거의 2 달 전인 12 월 초에 비자 발급 절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입학 허가서, 왕복 항공권 예약 확인증(e-ticket),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잔고 증명서, 거주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입학 허가서의 경우 TU Graz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였고, 보험 증명서는 오스트리아에 머무는 기간 전체를 cover 해야 합니다.

TU Graz 에서 교환학생을 하게 되면 필수로 OGK 라는 오스트리아 보험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은 그라츠에 도착한 뒤에 학교의 안내 절차에 따라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 발급 신청 시에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사관에 추가 서류를 한번 더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따로 방문을 하지는 않아도 되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따로 한국 보험 회사에서 교환학생용 보험을 문의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거주 증명서 또한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 머무는 기간 전체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2월 12일 입국, 8월 2일 출국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거주 증명서를 발급해갔습니다.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숙사 신청이 되어 있어 기숙사 확인증을 발급하였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하여 그 예약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정말로 묵을 숙소를 예약할 필요가 없고, 후에 무료 취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예약하면 됩니다. 저는 해당 기간에는 여행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자 신청용으로만 제출하였고 비자가 발급된 후 호텔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 4) 짐 싸기

제가 짐을 싸면서 작성하였던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립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li> <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li> <li>✔ 여권사본</li> <li>✔ 증명사진들!!(각종 서류 발급용)</li> </ul> </li> <li>✔ 각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권</li> <li>✔ 숙소 예약 내역</li> <li>✔ 입학허가서</li> <li>✔ 비자 복사본</li> <li>✔ 보험증</li> </ul> </li> <li>✔ 마스크</li> <li>✔ 지갑</li> <li>✔ 휴대폰 공기계</li> <li>✔ 상비약</li> <li>✔ 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복</li> <li>✔ 잠옷</li> <li>✔ 경량패딩</li> <li>✔ 운동복</li> <li>✔ 양말, 스타킹</li> <li>✔ 수영복</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매치기 방지 고리(다이소)</li> <li>✔ 선글라스</li> <li>✔ 이어플러그</li> <li>✔ 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낭</li> <li>✔ 크로스백</li> <li>✔ 에코백</li> <li>✔ 장바구니</li> </ul> </li> <li>✔ 보조بات데리</li> <li>✔ 향수</li> <li>✔ 머리끈</li> <li>✔ 줄이어폰(8핀/그냥)</li> <li>✔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썹칼</li> <li>✔ 쓰는 화장품들 + 많이 쓴 건 새로 사기</li> <li>✔ 퍼프</li> </ul> </li> <li>✔ 기초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팩</li> <li>✔ 스킨 로션 크림</li> <li>✔ 여드름패치?</li> </ul> </li> <li>✔ 접이식 우산</li> </ul> |
|--|---|

- ✔ 모자
  - ✔ 목도리
  - ✔ 약세사리
    - ✔ 귀걸이
    - ✔ 목걸이
    - ✔ 시계
    - ✔ 반지
  - ✔ 신발
    - ✔ 운동화
    - ✔ 슬리퍼
    - ✔ 실내화
  - ✔ 안경
    - ✔ 안경통, 안경닦이
  - ✔ 렌즈
  - ✔ 렌즈액
  - ✔ 렌즈통
  - ✔ 인공눈물
  - ✔ 세면도구
    - ✔ 폼클렌징
    - ✔ 클렌징 오일
    - ✔ 샴푸 린스 바디워시
  - ✔ 고데기
  - ✔ 빨래망
  - ✔ 젓가락
  - ✔ 기내목베개
  - ✔ 유산균
- ✔ 칫솔, 치약
  - ✔ 화장솜
  - ✔ 손톱깎이세트
  - ✔ 빗
  - ✔ 샤워볼
  - ✔ 학교
    - ✔ 15자
    - ✔ 30도칼
    - ✔ 노트북 아이패드
    - ✔ 키보드
    - ✔ 각종 충전기들(노트북, 아이패드, 휴대폰, 애 플워치)
    - ✔ 스케치북
    - ✔ 필기구(연필 등, 샤프심)
    - ✔ 외장하드
    - ✔ 랜선랜더
    - ✔ 노트
  - ✔ 동전지갑
  - ✔ 먹을것
    - ✔ 육수 큐브
    - ✔ 김

이 중 이어플러그, 렌즈액, 인공눈물, 클렌징오일은 꼭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럽에 잘 팔지 않거나 비싸게 팔고, 요긴하게 사용한 것들입니다) 이외에 화장 기초 제품의 경우, 오스트리아 드럭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주로 유럽인들의 피부 스타일이나 생활 습관에 맞추어 나온 제품들이 많기에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면 본인이 원래 사용하던 제품을 갖고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생활

##### 1) 생필품, 식료품 구비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마트는 크게 3 곳이 있습니다. SPAR, Hofer, Billa 입니다. 3 군데에서 파는 상품들에 큰 차이는 없고, 가격은 Hofer 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이용한 적 없지만 LidL 이라는 마트도 있는데, Hofer 보다 더 저렴한 상품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은 한국의 다이소같은 Tedi 와 Kik 이 있습니다. 저는 Kik 에서 기숙사 제공 식기 외에 더 필요한 그릇이나 제 물건들을 담아둘 수 있는 수납박스 등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화장품 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 같은 곳으로는 dm 과 Bipa 가 있습니다. 각종 화장품이나 여성용품, 약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저는 주로 dm 을 이용했습니다.

## 2) 은행 계좌 개설

계좌 개설은 주변 한국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N26 을 이용했습니다. N26 은 한국의 카카오뱅크처럼 따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이라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매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후에 한국에 돌아와 계좌를 닫는 것도 무척 편리하고 간단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서, 저는 학기가 끝나고 유럽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때도 잘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현금을 계좌로 deposit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 3) 여행

저의 경우 학기 중에 시간이 날 때 주변 나라들로 여행을 다녔고, 학기가 끝나고 약 한 달간 유럽 여행을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가 본 나라로는 크로아티아, 체코(프라하), 헝가리(부다페스트), 이탈리아(로마, 피렌체, 볼로냐, 베니스), 몰타, 영국(런던), 포르투갈(포르투), 스페인(마드리드, 세비아, 바르셀로나), 프랑스(니스, 파리)가 있고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비엔나, 잘츠부르크, 할슈타트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이용한 주요 교통 어플로는 OBB (기차 예매 어플), Flixbus(버스 예매 어플), Omio(유럽 내 기차, 버스, 비행기 등 교통편을 검색하여주는 어플) 3 가지가 있습니다. 숙소 예약은 주로 agoda 또는 airbnb 를 이용하였습니다. 한인 민박에 묵고 싶은 경우에는 마이리얼트립에서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sn 카드가 있으면 한정된 횟수지만 ryanair 항공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또 ISIC 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해가면 각종 관광지에서 미술관, 박물관 등의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flixbus 나 omio 할인 바우처도 제공하여주니 미리 한국에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통신

저는 Hofer 마트에서 살 수 있는 HoT 유심을 이용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유심 이용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으로, 한 달에 약 6 유로 정도면 충분하게 데이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유럽 다른 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로밍 데이터도 제공이 되어 여행을 할 때도 문제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esim 이 아닌 유심칩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꼭 유심 꺼내는 sim pin 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없어서 꽤 고생했습니다..ㅜㅜ)

## 5) 행사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싶다면 ESN이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SN은 교환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학교 OT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 하이킹 여행을 다녀오거나, zotter라는 근처 초콜릿 공장 견학을 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Movie night, Game night 등 자잘한 이벤트들이 매우 많이 열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직접 해당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 정원이 가득 차면 참여할 수 없으니 미리 인스타그램 계정 알림을 켜두었다가 관심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이벤트 중 좋았던 것은 Tandem이라는 언어 교환 행사였습니다. 여러 나라 친구들이 모여서 각국 언어를 서로 가르쳐주는 행사였고, 이 행사는 ESN 주최도 있지만 Uni Graz나 TU Graz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하니 이메일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이 행사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가장 많이 만나고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또 International Dinner라는 자신의 나라 음식을 요리해와서 다함께 나누어먹는 행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식을 소개하고,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볼 수 있어 즐거웠던 기억이 되었습니다.

## 5. 학업

TU Graz의 교환학생 규정 상 16ECTS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여, 저는 건축학과 수업 3개로 총 16.5ECTS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Integral Design Studio(12), World Building (2), Artistic Practice(2.5))

TU Graz 건축학과는 여러 개의 Institutes로 이루어져 있고 각 institute마다 studio 수업이 열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studio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영어로 열리는 수업은 10개 가량의 institute 중 3~4개 정도라서,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갔던 syllabus의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첫 주에 모든 institute가 자신들의 studio 수업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하여 본인이 관심있는 수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1,2,3지망 studio 수업을 담당자 email로 보내면 강좌 정원에 맞추어 알아서 배정되는 시스템이었고, 저는 운 좋게 1지망이었던 Landscape&Architecture institute의 studio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TU Graz의 건축학과 설계 수업은 크게 master(석사 과정)과 bachelor(학사 과정)으로 나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학사 과정이 2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교에서 6개 이상의 설계 수업을 들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master 과정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따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master 과정의 studio 수업과 전공 선택 과목 1개(World Building)을 수강하였습니다.

Studio 설계 수업 이외의 다른 과목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syllabus와 수업 시간표를 보고 선택하였습니다. TU Graz mobility online 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 목록을 확인 가능하니 강의 계획서와 수업 시간을 검토하여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 6. 후기

오스트리아와 유럽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새롭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한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과 새로운 풍경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혹시 그라츠로 교환학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여쭙어 보시면 제가 아는 한 자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june0401@snu.ac.kr](mailto:june0401@snu.ac.kr)